

순천 원도심에 웹툰·애니 콘텐츠기업 입주 ‘러시’

LOCAL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출판 등 수도권·광주 18개사...행정·재정적 지원
노관규 시장 “순순환 생태계 조성...일자리 창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웹툰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이

어지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원도심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에 콘텐츠기업 18개사

가 들어선다. 이번에 입주할 기업은 애니메이션 11개, 웹툰 6개, 독립출판 1개로 수도권(서울, 경기)과 광주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다. 시는 순천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일자리 창출효

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순천 이전 기업 관계자는 “순천시가 문화콘텐츠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확

인해 이전을 결심했다”며 “자체 IP 발굴, 해외 진출, 아카데미 사업 등 순천시와 많은

사업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이 순천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원도심 빈 건물을 활용해 기업들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2025 순천시 콘텐츠 기업 유치 설명회’ 모습.

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순천시와 입주기업, 건물주 간 상생협약(투자협약, 반값 임대료 등)을 체결한 뒤,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거쳐 6월에 입주할 계획

이다. 또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비, 기업유치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 아카데미, 글로벌 진출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수요를 파악

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작가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어

야 한다”며 “이번 콘텐츠기업이 점점 쇄락해가는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지역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은 시대변화를 읽고 우리만의 상상력으로 공공의 틀을 만들어 글로벌 생태도시, 정원도시가 됐다”며 “순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유

관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는 국가정원(순천만국제습지센터), 원도심(웹툰센터, 남문터광장, 원도심 반공실) 일대를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며, 지난달 웹툰기업

케나즈와 오노코리아 유치에 이어 이번 콘텐츠기업 유치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곡성, 어업 지원센터 준공

다슬기 종패생육장 등 갖춰

곡성군은 최근 죽곡면에 조성된 내수면 어업 지원센터 ‘다슬마을’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조상대 곡성군수를 비롯해 곡성군의회 의장 및 의원,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시설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섬진강과 대항강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토종 어류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특산 먹거리가 지역경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토종 어류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내수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내륙어촌 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전국 43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곡성군은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4억4800만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983㎡ 규모의 1층 건물이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커뮤니티센터와 다슬기 종패생육장이 들어섰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영광, 친환경 에너지 허브 도약

2035년까지 수소산업 육성

영광군은 최근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지역 맞춤형 수소산업 육성 전략과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수소도시 조성,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등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발표됐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중장기 발전 로드맵은 2025년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시작으로 추진단을 조직하고, 2035년까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 2040년까지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군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미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화순시네마, 문화 중심지 역할 ‘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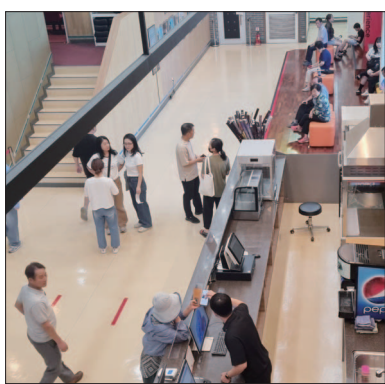
관객 수 1만명 돌파

화순시네마 올해 관객 수가 1만명을 돌파하며 문화 중심지로서의 중추 역할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시네마는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1만명의 관객을 맞이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일회용품 없는 영화관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과거 민간 위탁업체의 경영난으로 두 차례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군 직영으로 전환, 안정적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감소를 해소하고 있다.

화순시네마는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만 아니라, 소통의 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양한 영화 상영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 관광지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보다 풍부한 문화 콘텐츠 제공을 위해 (사)전남영상위원회와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기획전을 통해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곡성군은 최근 죽곡면에 조성된 내수면 어업 지원센터 ‘다슬마을’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고흥, 고향사랑기부 모금 2억원 달성

다양한 기금사업·예유시책 등 추진 효과

고흥군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지난 2일 기준 2억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12억3000만 원을 모금해 전국 기초지자체 2위를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9억3000만 원을 더해 누적 22억여원을 모금했다.

군은 올해 전국 최고의 모금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향우회·기관사회단체 홍보 및 각종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부자를 유치하고,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통한 기부 창구 다양화로 기부자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고흥에(愛) 전당,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어 등 예유 시책을 통해 기부자 효능감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일반기금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사업, 스마트 영농벨리지와 글로벌 지식 캠퍼스 지원센터 조성, 스페이스 빌리지 조성사업(3건), 소록도의 천사들 나눔과 추억의 공간 조성, 독립운동가 율파 서민호 선생 선양사업, 천경자 화백 기념관 조성(3건) 등 지정 기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담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기부 금액은 올해부터 개인 연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또는 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 및 위기브·농고팜 등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품형 기금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기부자 예유시책 및 다양한 담례품 제공 등을 통해 기부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여수, 섬박람회 연계사업 추진 상황 점검

여수시는 최근 보건소 회의실에서 ‘섬박람회 연계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회는 최정기 부시장 주재로 27개 부서장, (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연계사업 공정을 등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국·도비 예산 확보, 공모사업 선정 전망 등을 논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섬박람회 연계사업은 완료된 12개 사업을 포함해 9개 분야 77개 사업으로 섬박람회 주·부행사장 조성,

교통 대책, 섬 관광·숙박·음식 등의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박람회장 도시 숲·정원 조성, 스마트 조명 등 설치,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도 섬어촌문화센터 건립, 섬섬평평장 조성 등이 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65개 사업에 대해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지속적인 점검과 동시에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로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 기군 브로커